

증권사, 연말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경쟁력 강화 도모

NH투자증권, 리테일혁신추진부 신설
운영리스크팀 통해 관리 강화 대응
LS증권, 조직개편으로 IB 지위 강화
삼성증권, 예년보다 승진규모 확대

증권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종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력을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초부유층과 디지털 부유층이라는 핵심 고객군 공략을 위해 리테일(Retail)혁신추진부를 신설했다. 또 기존 디지털(Digital)전략 본부를그로스(Growth)그룹으로개편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기반 성장을 추진하고, 리테일지원본부는리테일자문(Retail Advisory)본부로변경해자문 서비스 역량을 강화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가 연말 조직개편, 임원인사를 실시하는 이미지.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글로벌 신디케이션부와 구조화금융부를 신설, 글로벌 세일즈와 구조화 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위탁운용관리(OCIO)솔루션본부 산하의 멀티상품솔루션부를 IB사업부로 이동시키고 부서명을 글로벌 상품(Global Product)솔루션부로 변경했다.

기관영업 부문에서는 투자솔루션제

공과 OCIO 수행으로 전문화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쿼티 세일즈(Equity Sales)본부 명칭을 기관 커버리지(Coverage)본부로 변경하고 기관 금융상품영업까지 포괄하는 홀세일(Wholesale) 비즈니스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OCIO솔루션본부 산하에 마케팅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OCIO마케팅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전사 지원조직은 사업조직의 효율적

지원과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너지 관리조직, 운영리스크 관리조직,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체계를 변경했다. 특히 리스크관리본부에 운영리스크팀을 신설해 감독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대응하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부문을 신설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도 단행했다.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중용했다. 이재경 PWM사업부대표와 이수철 운용사업부대표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IB 부문에서는 이성 IB1사업부 대표, 신재욱 IB2사업부 대표를 나란히 전무로 승진시켰다.

LS증권도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IB 조직의 지위를 강화하고 기업 솔루션 제공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기업 금융조직을 IB1사업부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기업금융본부와 종합금융본부를 편제했다. 기존 IB사업부는 IB2사업부로 재편해 부동산금융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리테일사업부에서는 윤주의 디지털 영업본부장을 새롭게 선임하고 디지털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리테일 영업환경에 대응키로 했다.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Trading)사업부에서는 산하 멀티 스트래티지(Multi Strategy)본부와 주식운용본부를 통합·재정비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기업금융본부를 이끌던 문형동 전무가 IB1사업부대표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본부장인 정재욱 상무가 IB2사업부 대표를 맡는다. 오영진 전무와 윤원재 상무는 각각 리테일사업부와 홀세일사업부 대표로 선임됐다.

삼성증권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1명, 상무 5명 등 총 6명을 승진시키는 등 예년보다 승진 규모를 확대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정기 임원인사에서 김용민 부사장과 박지호·유진환 상무 등 총 3명을 승진시켰다. 양사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비트코인·테슬라, 조정 이후 상승세 기대감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MSTU 1억만 달러 매수
ETHU에도 4544만 달러 몰려

최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조정 국면을 보였던 비트코인 테마주와 테슬라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 이후 상승세 재개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11월 26일~12월 2일)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따르는 티렉스 2배 롱 MSTR 데일리 타겟 ETF(MSTU)을 1억914만 달러 가량 사들였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대체 투자처'로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 역시 지난달

초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는 무려 94%가량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11월 21일 하루 만에 16.2% 급락하는 등 이날 2일까지 7거래일 동안 20%가량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가 조정을 마치고 곧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전략이 어떠한 리스크 없이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전략의 취약점이 상기되며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더리움 선물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2배 이더 ETF(ETHU)에도 약 4544만 달러가 몰리

며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학개미는 박스권에서 등락했던 테슬라에도 1억592만달러의 매수세를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11월 8일 300달러를 돌파한 후 320~35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펠의 스티븐 젠가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높은 41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는 '행 스티펠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 기업이 아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가총액 합보다 더 큰 것으로도 알 수 있다"며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사이버 캡(로보택시)의 가치 창출 잠재력 등이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윤창현 "사장 직속 'STO 태스크포스' 신설"

(코스콤 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본시장 3대 변화흐름 대응 전략 제시
ATS 출범 등 88-66 미션 완수도 총력

"토근증권(STO) 관련 사업은 직접 챙길 예정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사장실 직속으로 만들었고, 본부의 역할이나 조직 구성을 직접 책임 있게 가동시키겠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사장은 이날 코스콤의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3대 변화 흐름인 ▲New Assets(새로운 자산) ▲New Market(새로운 시장) ▲New Technology(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New Assets'에 대해서는 'STO 공동플랫폼'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사장은 STO 사업을 직접 챙기며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사장 직속 부서인 'STO사업추진TF부'를 신설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3일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NewMarket'에서는대체거래시스템(ATS)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장에 대비한 '88-66 미션' 완수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 Technology' 분야에서는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AI 컨택센터(AICC)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사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국내증시 부진... 기관, 인버스 투자로 수익

연말 '산타렐리' 기대감 뚫

연말을 맞이했음에도 한국 증시에 '산타렐리'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증시 상승을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하락을 겪는 반면, 인버스에 투자한 기관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45.62포인트(1.86%) 오른 2500.10에, 코스닥은 14.96p(2.21%) 오른

690.80으로 장을 마쳤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빠르게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국내 양대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인버스 ETF의 수익률을 넘

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주 동안 개인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 ETF는 기초지수인 코스닥15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씩 추종하는 ETF로 한주간 수익률 -8.92%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선물인버스 2X ETF'와 'KODEX 코스닥 150선물인버스' 등을 순매수한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6.41%, 4.68%의 수익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산타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차증권, 신용도 하향압력 완화 평가

지난달 2000억 규모 유상증자 대한 재무건전성 지표 회복 시 부담 완화

현대차증권은 지난 11월 결정한 유상증자에 대해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도 하향압력 완화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1월 현대차증권 이사회에서 결정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위험투자 확대로 저하됐던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당부분 회복되며 신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이 수정NCR과 순자본비율이 각각 267%, 636.4%로, 2024년 9월말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6배 수준까지 도달했던 조정레버리지비율도 5배 미만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